

예술로만 말할 수 있는 것과 예술이기에 다 말하지 않는 것

김최은영(미학)

그것은 일상일 수도 있고, 환상이나 이데아일 수도 있는 일이다. 문명이라는 울타리 속에 인간이라는 자생적 동물이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수많은 사변적 생각이나 현상의 고발일 수도 있고, 그저 감상적 회상이나 창작자의 새로운 창작물 일 수도 있다.

최승훈+박선민의 작업은 이러한 모든 범주를 넘나들며 조형이라는 텍스트를 그들만의 구조로 재생산해낸다. 한 눈에 보기에 직감과 이성,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들의 작업을 굳이 문자 언어로 비유한다면 그들이 제시한 詩로도 설명 가능한 시적 언어라 하겠다. 이러한 시적 언어는 조형언어의 개념을 넘어 여러 가지 암호나 기호 등으로 작업에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암호로 구성된 편지 형식의 작업은 이들 작업의 이분법적 구조를 잘 보여준다. 제시된 암호는 그것을 소통하는 일련의 관계를 제외한 타자에겐 단절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계가 되지만, 정작 최승훈+박선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통가능한 관계의 밀접한 구조다. 게다가 그 밀접한 관계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울타리가 낮은 구조물로 그들은 누구나 그 낮은 울타리로 들어와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소통에 대한 희망은 다른 작업에서도 보여 진다. 점자로 이루어진 텍스트와 만지는 점자 전등이 그러한 유형의 작업이다. 보이지 않는 핸디캡의 사람들에게 시각 예술은 의미 없거나 소용이 없는 일이라 단정 짓기 쉽다. 그러나 만지는 점자 전등의 경우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소통을 제시하게 된다. 그들의 방식으로 소통된 조형언어는 시각 예술의 범주 확장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핸디캡을 전혀 갖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다른 유형의 소통방식, 즉 만지지 않으면 전혀 다른 오독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그것이 나쁘다고 단언하거나 작가들이 관람자에게 오독을 유도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일방적인 소통의 구조를 경계하는 모습을 제시하게 된다.

게다가 그들이 제시한 다양한 앵글 속 이미지는 시 언어의 기능을 유지한 채 다양한 표현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달리는 차 창 밖의 풍경을 영상에 담아 유리창 벽면에 재현시키는 방법과 비둘기의 움직임을 잡은 화면에서 보이는 뷰파인더 눈의 위치는 사뭇 다르다. 또한 유명하고 있는 물고기들은 전시장을 마치 그들의 공간인양

돌아다니며 영상뿐 아니라 공간 자체까지도 작업의 연장선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구석에 설치된 풀숲의 모습은 마치 독립된 숲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본 듯한 바라보기의 지점을 유지시킨다.

이들의 다양한 ‘눈’을 통해 마주하는 것들은 새로운 판타지나 존재하지 않는 시물라크롬이 아니다. 적어도 일상에서 한번쯤은 마주했을 만한 풍경이거나 늘 바라보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지나쳤던 내 몸 한 구석, 비둘기 한 마리, 물고기나 흔한 풍경 따위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다양한 ‘눈’에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며 다분히 의도된(혹은 방치된) 앵글과 의도된 정직해 보이는 화면들이 오히려 진정성에 가까운 문제에 접근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진정이란 사실은 최승훈+박선민에게 진짜 사실인 현재인 이야기이다. 어느 날 집으로 들어온 비둘기는 더 이상 낯선 타자와 관심 밖의 사물이 아닌 그들에게 암호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관심의 대상에게 시선을 맞추고 접근해 보는 그들의 태도는 역시나 작가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인 시각예술이라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진정성, 사실적인 현실은 다양한 미디어와 매체들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통해 그들이 발췌해 낸 텍스트를 통해 더욱 드러나게 된다. 신문과 잡지, 그리고 현실에서 보여 지는 여러 가지 상황적 모순을 담고 있는 작업들은 다소 정치적이라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 역시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손 끝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사유한 후 제시하는 작업은 거대담론이기 전에 매우 감각적이며 시각적이기 때문이다. 잡지나 신문의 한 부분을 드러내는 작업이나 포스터나 유인물을 철거현상의 담벼락에 붙이는 과정에서 시각적 아름다움은 여전히 살아 있다.

최승훈+박선민의 시각예술적인 것과 시각예술적이지 않은 양면성은 이뿐이 아니다. 최승훈+박선민의 작업은 반드시 형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형상은 지각이라는 선행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은 심상이미지에 대한 사유를 마치 관찰자와 같은 시선으로 지각하는 정신적 경험에 도달한다. 형상 또는 사유는 그것을 지각하는 사람과 분리될 수 없다. 형상이 실제로 즉자적일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실존이 그것들과 항상 매개되어 있기 때문이고, 시선의 고프머리 또는 감각적 탐색의 끝에서 정립되기 때문이다. 이미지에 대한 사유가 가장 명료해질 때, 그들의 선택적 순간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 선택적 순간은 최승훈+박선민의 작업에서 독단적이라기보다 유기적 구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놓여진.

사물들의 보기 좋은 표현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들의 사유로 잉태된 이미지들이 화면 속에서 미묘한 자기 자리를 잘 찾아 앉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성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관계는 사물을 독립된 즉물이 아닌 서로 중복되어 결합하고 인접하는 요소들 간의 미묘한 균형으로 은유적 스토리를 만들어 내곤 한다. 물론 이렇게 스토리가 있을 법한 극적 구성은 작가들이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시각창작예술품은 종종 우리에게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가 습득한 언어 대신 아직 배우지 못한 단어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중 몇몇은 개인적 경험에서 온 나쁘지 않은 오독이나 동시대인의 감상 등으로 소통이라는 통관의례를 거쳐 그들의 단어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범위만큼 믿어 버리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선이나 손에서 펼쳐진 감각적 소녀들은 그 자체가 새로운 언어, 즉 아직 배우지 못한 단어로 의미의 기호와 같은 구조를 띤다. 그리고 항상 거시와 미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풍경사진이 그러하다. 전체를 조망하지만 언제나 주된 담론은 미시적인 이야기에 담겨있다. 설치 작업인 안양천 위에 드리워진 전등 역시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낮에는 그저 주렁주렁 매달린 전등이지만 시각 예술을 감상하기 부적절한 밤이 되면 오히려 점등되어 점자언어를 구성하고 이 언어는 다시 물 위에 투영되며 시각적 매력을 발산해 낸다. 시각적 매력, 그들의 작업이 공공에 대한 부채감을 지닌 것 같은 작업인 동시에 시각 예술이라는 부분을 절대로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올해 팩토리에서 갖은 「Untitled」에서 더욱 잘 부각되는 듯하다. 이들의 이번 작업은 매우 시각적인 동시에 그들에게는 실험적인 전시이며 아직 완결되지 못한 사고를 그저 시각적으로 던져 내는 행위였다.

최승훈+박선민은 모든 '하나'에 존재하는 미묘한 양면성이나, 모든 '둘' 사이에 존재하는 팽팽한 관계를 드러내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최승훈+박선민의 개인전「Untitled」는 잡지「Versus」와 여러 측면에서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내용과 형식의 새로운 추상성을 실험하려 한다. 이를 통해 최승훈+박선민의 관심과 표현이 양분 되지 않고 서로 녹아든 심미적 상태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최승훈+박선민

이번 전시에 대한 이들의 설명은 시각적 사고를 하고 있는 최승훈+박선민의 모습을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실험적이라 말하고 있는 올해 전시에서는 시각적 사고 중 시각적이 우선시된 작업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전 그들의 작업이 이미지를 가지고 충분히 놓고, 대화하며, 사고의 체계를 거쳐

결과물을 내어 놓는 방식을 택했다면 올해 보여준 전시에선 그들의 사유체계보다  
앞선 그들의 눈과 손을 보여주는 전시였다. 왜 그러한 이미지를 채택했는지,  
전시장에서 선택된 최종 인스톨의 결론이 왜 그러한지에 대한 해답은 카메라의  
셔터타이밍 같은 감각적인 그들의 시각예술 방식이었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범주를 넘나드는 이들의 작업. 나는 그들의 작업을 굳이  
조형예술이나 문자예술의 범주 속에 끼워 맞추지 않아도 좋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들의 지속적인 작업 속에서 하나 된 공통적  
교집합이 보이는 것은 창조라는 부분 외에 현실에 대한 보고서 같은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작성한 현실에의 보고서에는 수많은 언론에서 미처  
다루지 않는, 혹은 전혀 다룰 수 없는 심상과 고발의 지점이 함께 녹아 내려있다.  
다만, 거기에 예술의 일환으로 보여 지는 과정상 너무 솔직하게 까발리길 거부하는  
방법론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서도 누누이 밝혔듯 최승훈+박선민 작업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긍정의 양면성인 이성적 사유와 감각적 손끝. 그래서 나는 그러한  
전자를 예술로만 말할 수 있었던 그들의 사고, 후자를 예술이기에 다 말하지 않는  
그들의 손이라 부르고 싶다.